

편모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ldren's Adjustment in the Single-Mother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김영희

강사 김갑숙

교수 최외선

Dept. of Home Management, Young Nam Univ.

Master Course ; Young Hee Kim

Lecturer ; Gab Sook Kim

Professor ; Wae Sun Choi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ildren's adjustment according to the their problems and problem solving pattern in single mother.

The data of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186 children of single-mother.

For analysis of data,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children's problem are composed seven factors that are house life, emotion, school life, peer-relationships, academic achievement, finicial, future life. The family structural variables to have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s problem are age, sex, father's absence reason, SES, mother fostering attitude.

2. The mean value of children's problem solving pattern such as seeking religion support and passive appraisal was highest. The children's problem solving pattern were affected by mother's fostering attitude.

3. The inadequacy among children in single-mother was related to mother fostering attitude after father's loss, children's problem and children's problem solving pattern that emphasizes the interdependence of each element in this children's adjustment network.

I. 서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체계의 변동과 더불어 가족의 내·외적 구조 및 관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현대가족은 핵가족화, 전통적 가족기능의 상실, 여성의 사회진출, 남녀 평등주의, 개인주의의 대두 등으로 인해 가족간의 유대가 과거에 비해 이완되어 가고 있다. 가족유대의 이완은 이혼이나 별거율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암과 같이 현대의학으로 치유하기 힘든 성인병의 급증으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가족은 더욱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편부모 가구는 39만 4380 가구였으나, 1980년대는 거의 2배에 달하는 74만 3627 가구로 증가하였고, 그 비율은 전 가구 구성에 있어서 10%나 차지하고 있다(김태현, 1993). 이러한 현상의 예로서 편모가정의 발생 추이를 살펴볼 때, 사별은 1971년도 87.0%에서 1988년도의 64.3%로 점차 감소한 반면, 이혼으로 인한 편모가정은 1971년도 4.2%에서 1988년도 19.9%로 약 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김정옥, 1993).

편모가정의 모는 우선 경제적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짊어짐으로서 자녀양육 및 교육상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편모가정내 자녀들은 父不在 이후에 오는 감정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증가된 책임량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父不在는 아동에게 정서적인 문제와 학업성적의 하락, 동료와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며(Hetherington et al, 1979, 1982, 1989; Wallerstein & Kelly, 1980), 자아개념, 인지능력, 도덕성 발달(김영희, 1987; 강해구, 1987)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이 자녀에게 있어서 父의 상실은 정신적인 충격과 일상생활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여러문제를 야기시키는 위기원(crisis causer)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父不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편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아직까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이정숙, 1979; 황옥자, 1980; 최선애, 1984; 조용분, 1985; 김미영, 1989; 김정자, 1989)는 주로 편부·모 자녀들의 자아개념, 도덕성,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달론적 관점과 체계론적 관점에서 자녀의 개인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자녀의 적응은 父不在시 자녀의 연령, 성별, 기질, 모와의 관계, 자녀의 대처자원과 같은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동의 적응을 父不在라는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대한 통합적 양상으로 간주하여, 父不在 후 모의 경제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상태,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자녀의 대처방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Kitson et al, 1989; Kalter, et al, 1989; Amato & Keith, 1991). 따라서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 및 적응행동을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으로서의 문제해결방식을 알아보고, 이것이 자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편모가정의 자녀생활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父不在와 자녀문제

자녀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父나 母 중 어느 한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960년대 이후로는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성모방의 모델이 됨으로서 자녀의 사회화를 도우고 있는데, 이때父의不在는 자녀의 역할모델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Hetherington & Cox, 1975; Levinger & Moles, 1979). 또한 편모가정은 가족내의 역할구조가 약화되거나 파괴되기 쉬워서 母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양육하는데 자신감을 잃으므로 자녀는 대인관계, 학업문제, 학교생활문제, 가정생활문제와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황옥자, 1980; Deborah, 1991; Judith, et al, 1991).

한편父不在는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편모가정내 사춘기 여아는 이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좀 더 회피적이거나 적대적이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Hetherington & Cox, 1975, 1979, 1982; Levinger & Moles, 1979). 특히父가 사망한 경우보다는 이혼·별거한 경우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남편에 대한 적개심을 더 많이 발산하므로 이들의 자녀가 부정적인 이성관계와 대인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 부모의不在를 “결손”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편모 자녀들의 건전한 성격형성과 성역할 습득에 장애가 있다고 보는 구조기능주의론적인 관점과,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강화자로서 작용한다는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회학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父의 존재는 행동통제 및 성모방 대상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父不在를 가족구조상의 변화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재구성의 과정으로 보고 편모가정내 자녀들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母가 父의 기능과 역할을 자녀에게 더 잘 이해시켜야 한다(Levinger, 1979).

2. 父不在와 자녀적응

인간이 처음으로 사회관계를 맺는 곳은 가정이며, 이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전생애의 적응을 결정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적응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 적응을 힘들게 하는 상태에 직면하는 일이 많고, 아동기에 어떤 위기적 사건을 맞이했다할지라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부적응과 관련되어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시기는 청소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장기령, 1983). 또 이 시기에 각 개인마다 획득되고 형성되는 적응양식은 그 후 일생을 통해서 그의 적응체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Bower(1978)는 적응이란 개인이 가진 욕구가 그 환경 내, 즉 가정과 사회에서 적절히 수용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 정의했으며, 이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여러가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편모가정내 자녀에게父不在는 그 자체가 적응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父不在가 자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이들은 자녀적응을 반사회적인 일탈행동, 자존감, 생활의 만족도, 공격성, 우울감 및 자기비하 등의 종속변인을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편모자녀가 일반자녀아에 비해서 범주추행위, 가출, 흡연, 학칙위반, 약물복용, 절도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더 많이 나타내었으며(Dombusch, et al, 1985; Kalter, et al, 1989; Baydar, 1988), 우울, 억압행위, 정신분열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상태를 직면하는 것으로(Peterson & Zill, 1986; Hetherington, et al, 1989)보고되고 있다.

편모가정의 자녀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를 보면, 편모 자녀가 정상가정의 자녀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도덕성을 소지 하였으며, 공격적, 위축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성격을 나타내었다(김경중, 1985; 김순애, 1987; 박원희, 1987; 김영희, 1987).

Cocharn, et al(1990)은 편모가정내 남아가 편모가정내 남아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이 더 힘들었으나, 성인남자가 있는 친척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이혼자녀의 경우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자녀와 접촉하는 빈도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Baydar, 1988; Helly, Malley &

Stewart, 1990; Johnston & Kline, 1989) 편모가정내 자녀 부적응을 父不在 그 자체와 연관짓기 보다는 父不在로 인해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모델이 상실되어 올바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습득하는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Booth & Amato(1991)는 92명의 이혼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취, 도덕성, 심리적 적응, 자경심 그리고 사회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적응을 살펴본 결과, 父不在 후 母의 자녀양육기술, 母의 적응상태(경제적, 생활변화, 심리적응),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함으로서 자녀에 대한 母의 지원적 태도가 자녀적응에 주요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녀에게 스트레스원이 되는 사건은 단순히 父不在가 아니라 편모자녀가 됨으로서 겪는 부차적인 문제-경제적 어려움, 이중역할, 사회의 부정적 인식, 편견, 고립, 정상아에 비해 낮은 정서적 지원 등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자녀의 자원, 母의 적응, 사회의 시각변화 및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회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자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것은 158명의 이혼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의 질과 신체적 무기력 및 외로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종속변수로 한 적응 측정 결과에서,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동거부모와 개방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적응이 높아진 정현숙(1993)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성장하는데 필요한 감정적 지원자이며, 정보와 충고·조언을 주는 조력자인 동시에 사회화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모델로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父不在는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원의 일부인 역할모델이 상실되는 결과, 따라서 적응을 힘들게 하는 일련의 위기적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부적응을 단순한 역할모델의 상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위기적 사건과 대처방안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간주하여, 父不在 후 발생하는 자녀문제와 대처방안으로서의 문제해결방식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자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자녀의 성

父不在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큰 충격적 사건으로(Hetherington & Cox, 1975), 남아의 경우 적절한 성역할의 모델과 동일시 대상이 상실됨으로서 정상 가족아에 비해 여성적이고 북종적이며 덜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isher; 김순애, 1987에서 재인용). 한편 이정숙(1979)은 딸결핍이 여아에게 다른 성의 학습대상이 되는 父가 상실됨으로서 性반응 곤란을 초래하여 남성과의 상호작용을 힘들게 한다고 했다.

2) 자녀의 연령

Santrock(1972)은 자녀가 父不在 후 경험하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동을 학령전(0-5세), 잠재기(6-12세), 청소년기(13-18세)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학령전 아동은 양육부모가 자기를 버릴까 두려워하는 감정이 크므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나타내었으며, 잠재기 아동은 자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을 잃었다고 느껴서 죄책감으로 괴로와 한다고 했고, 청소년기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표현하여 분노, 슬픔, 수치심을 나타내는 등 새로운 가정생활 적응에 곤란을 느낀다고 했다. 결국 父不在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父不在 원인

Kitson & Morgan(1990)은 父不在 원인이 사망 또는 이혼·별거 여부에 따라 자녀적응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이혼가족아가 父사망가족아에 비해 공격적, 이탈적, 과잉행동이 많은 반면, 父사망가족아는 위축, 퇴행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것은 父에 대한 母의 감정이나 감동양상이 자녀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母의 양육태도

母의 양육태도가 자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억압적이고 위압적일수록

자녀, 특히 남아의 행동장애를 유발시켰으며, 애정적, 수용적, 민주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부적응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urstenberg & Nord, 1987; Johnston et al., 1989). 또한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비일관적이고 덜 애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편부가정보다 편모가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것은 어머니가 증가된 책임량과 경제적 문제, 역할가중으로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며 이혼한 경우 상실한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자녀를 학대하여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높이기 때문이다(Wallerstein & Blacklee, 1989). 김병임(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을 받고 자란 아동은 바람직한 성격을 소지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행동을 했지만, 적대적이고 엄격하며 모순적인 양육태도하에서 성장한 아동은 비정상적인 성격을 소지하였고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었다. 이로서 자녀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5) 자녀의 문제해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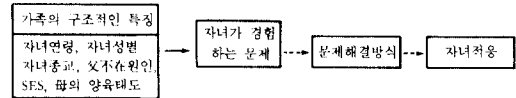
父不在라는 위기적 사건은 자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원으로 다가오므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개인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대처행동을 취한다. Amaro(1993)는 父不在 후 자녀적응을 “문제”와 “대처자원”의 개념으로 규정짓고, 자녀가 위기적 사건에 직면하여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해 적응양상이 달라진다고 했다. 정현숙(1993)은 자녀들이 이혼이라는 위기적 사건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방식을 알아본 결과 스스로 해결, 친적·가족의 도움, 종교적 도움, 친구의 도움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이용할수록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父不在라는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는 자녀들의 문제해결방식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앞에서 고찰한 편모가정의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설정했다(그림 1).



〈그림 1〉 편모가정 내 자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모델

이상의 연구모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일반적 경향과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자녀 문제해결방식의 일반적 경향과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자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편모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 父의 상실은 강한 슬픔, 분노, 당혹감을 야기시켜 부적응 행동을 초래하기 쉬우나, 반면 이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평가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모가정이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父의 사망, 이혼·별거로 인해 영속적으로 부재된 가정으로서, 구조적 편모자녀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편모가정 내 청소년 자녀의 가족구조적 특징에 관한 질문과 이들 자녀들이 평상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6)*

변인	구분	빈도(%)
연령	중학생(13-16)	79(42.5)
	고등학생(17-19)	107(57.5)
성별	남자	75(40.3)
	여자	111(59.7)
자녀종교	무교	71(38.2)
	기독교	54(29.0)
	카톨릭	14(7.5)
	불교	43(23.1)
	부교	3(1.6)
형제자매수	없다	7(3.8)
	1명	24(12.9)
	2명	65(34.9)
	3명	48(25.8)
	4명 이상	42(22.6)
父不在원인	사망	110(59.1)
	이혼	58(31.2)
	별거	18(9.7)
父不在기간	1 - 4년	61(32.2)
	5 - 10년	101(61.6)
	11년 이상	22(13.4)
母의월수입	40만원 미만	32(18.8)
	41 - 60만원 미만	46(27.1)
	61 - 80만원 미만	37(21.8)
	81 - 100만원 미만	29(17.1)
	101-120만원 미만	14(8.2)
	121만원 이상	12(7.1)
母의학력	국졸	59(31.7)
	중졸	69(37.1)
	고졸	49(26.3)
	전문대졸 이상	9(4.8)
母의직업	① 일일 노동자	61(32.8)
	② 농·축산업	57(30.6)
	③ 외판원·상인	46(24.7)
	④ 6급이하 공무원	18(9.7)
	⑤ 고급공무원·전문직	4(2.2)

* 빈도에 따라 전체 사례수는 변인마다 차이가 있음

시 경험하는 문제, 대처방안으로서 자녀의 문제해결 방식 및 자녀적응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구조적 특징

가족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의 연령, 성별, 종교, 父不在 원인, 母의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과 母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 母의 양육태도는 이종승(1982)이 제작한 질문지로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중 애정-적대, 자율-통제 부분만 각 10문항씩 20문항을 사용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한 母의 양육태도가 애정과 자율에 가까우며 낮을수록 적대와 통제에 가깝다. 전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79$ 이다.

2)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녀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황옥자(1980), Peterson & Zill(1986), Judith(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총 31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4$ 로 나타났다. 이들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인 분석과 직각회전에 의해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가정생활 문제, 정서적 문제, 학교생활 문제, 교우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상례문제 등 7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85.9%였다.

3) 자녀의 문제해결방식

父不在 후 자녀의 문제해결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정현숙(1993), McCubbin, Larsen & Olson(1985)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의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로 자신의 위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측정할 것이다. 주요인 분석과 사각회전에 의해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친구·교사의 도움(4문항), 종교적 도움(3문항), 스스로 해결(4문항), 문제회피 및 방관(3문항)의 4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73$ 이

다.

4) 자녀의 적응상태

편모자녀들의 적응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병임 (1992)이 사용한 척도 중 아동의 공격행동, 과잉행동, 위축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 해당하는 문항을 각각 10문항씩 추출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91$ 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4.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설문조사는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10개 중·고등학교를 무선표집하여 학교 교사를 통해서 편모가정의 청소년 자녀들만 편의표집하였다. 1994년 6월 27일에서 7월 10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는 8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 내용에 비적합한 14부는 제외시키고, 186부만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Duncan-Test, 요인분석,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문제의 차이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평점 5점 만점에 2.37로 나타나 중간보다 약간 낮았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업문제와 장래문제가 높았으며, 교우관계로 인한 문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

정자 연구팀의 조사결과, 중·고등학생들의 91%가 학교 성적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73%의 학생이 성적과 진로문제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국제신문, 1990.2.7.), 김문조의 연구에서도 71%의 학생이 성적과 진로문제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조선일보, 1991. 12.3) 위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고등학생이 현재 학업이나 진로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현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한 과잉 교육열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변인에 따른 자녀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父不在 원인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과 사별한 가정의 자녀보다 중학생과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문제의 7개 요인을 변인별로 살펴 본 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 자녀문제 요인은 가정생활문제, 정서적 문제, 교우관계문제, 장래문제였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문제를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정서적 문제와 장래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요인 모두 남아가 더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 이것으로 父不在는 성역할 대상이 부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아에 비해 남아는 사회화에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와(Hetherington, et al, 1982), 일반적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는 주위로부터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모가정의 남아는 父의 상실로 인해서 정상가정의 남아보다 부모나 선생님, 동료들로부터 훨씬 적은 지원을 받게되므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Hetherington, et al, 1975)로 이해할 수 있다. 母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인 자녀문제는 경제적 문제였다. 母의 학력이 중졸 이하의 집단과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母의 직업과 월수입에 따라서도 경제적 문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편모가정 내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가 문제를 좀 더 경험

〈표 2〉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문제의 차이

변인 구분		가정생활	정서적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업	경제적	상래	계
집단 (빈도)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전체(M)		2.12	2.32	2.32	1.85	2.72	2.24	2.71	2.37
자녀연령	13-16(79)	2.31	2.49	2.28	2.34	2.70	2.25	2.83	2.44
	17-19(107)	1.98	2.18	2.34	1.98	2.73	2.23	2.61	2.31
	t 값	6.32***	6.68***	0.17	4.13**	0.06	0.03	2.08*	2.53*
자녀성별	남(75)	2.06	2.44	2.40	1.89	2.72	2.24	3.77	2.36
	여(111)	2.15	2.02	2.26	1.82	2.72	2.24	3.12	2.36
	t 값	0.46	6.63***	1.08	0.31	0.00	0.00	6.68**	0.02
자녀종교	부교(71)	1.98	3.01	2.36	1.95	2.70	2.27	3.24 a	2.39
	기독교(54)	2.21	2.02	2.22	1.88	2.75	2.28	2.20 b	2.37
	천주교(14)	2.25	2.00	2.52	1.50	2.80	1.89	2.10 b	2.26
	불교(43)	2.22	2.21	2.36	1.75	2.68	2.26	2.51	2.36
	기타(3)	1.50	2.31	1.77	1.66	2.75	1.83	2.00	2.07
	F 값	1.11	3.72**	0.62	1.06	0.08	0.91	4.53**	0.35
父不在 원인	사망(110)	2.80	2.24	2.21	1.77	2.60	2.25	2.56	2.28
	이혼·별거(76)	2.17	2.42	2.47	1.95	2.89	2.22	2.92	2.49
	t 값	0.51	2.01	3.67*	2.01	5.21**	0.09	6.03***	5.75**
母의 학력	국졸이하(59)	2.04	2.35	2.36	1.72	2.75	2.35 a	2.71	2.38
	중졸(69)	2.10	2.28	2.29	2.01	2.76	2.33 a	2.69	2.39
	고졸(49)	2.32	2.38	2.38	1.83	2.70	2.09	2.77	2.38
	전문대졸이상(9)	1.66	1.96	1.85	1.51	2.36	1.58 b	2.25	1.91
	F 값	1.82	0.75	0.89	1.82	0.62	3.29*	0.71	2.11
母의 직업	일일노동자(61)	2.12	2.34	2.28	1.85	2.76	2.35	2.78	2.40
	농·축산업(57)	1.85	2.36	2.39	1.71	2.98	2.10	2.64	2.35
	위관원·상인(46)	2.31	2.39	2.31	1.95	2.63	2.01	2.74	2.35
	6급이하 공무원(22)	1.93	1.96	2.40	1.74	2.45	2.38	2.37	2.21
	F 값	1.68	1.50	0.17	0.55	1.69	2.25*	1.03	0.74
母의 월수입	40만원이하(32)	2.51	2.53	2.39	1.90	2.79	2.42 a	2.64	2.47
	1-61만원(46)	2.08	2.33	2.26	1.74	2.90	2.38 a	2.85	2.42
	61-80만원(37)	1.90	2.12	2.17	1.64	2.47	2.33 a	2.56	2.22
	81-100만원(29)	2.12	2.35	1.34	2.16	2.65	2.11	2.81	2.39
	101만원이상(26)	2.05	2.35	2.47	1.80	2.62	1.68 b	2.61	2.25
	F 값	2.07	1.02	0.49	1.74	1.46	4.26**	0.58	1.35
母의 양육 태도	적대(86)	2.39	3.69	2.43	1.95	2.94	2.55	2.91	2.56
	애정(100)	1.89	3.29	2.23	1.77	2.54	1.98	2.54	2.19
	t 값	3.95***	2.22***	1.51	1.43	3.39***	5.02***	2.61**	4.70***
	자율(81)	1.95	2.18	2.10	1.68	2.55	2.02	2.39	2.15
	통제(105)	2.34	2.49	2.60	2.07	2.95	2.53	3.13	2.63
t 값	2.99**	2.64**	3.85***	3.19**	3.35**	4.53**	5.25***	6.47***	

* p<.05 ** p<.01 *** p<.001

하므로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는 선행결과와 일치한다(Perry, 1985; Jaune, 1989; Jeanne, et al, 1989에서 재인용).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인 자녀문제는 정서적 문제와 장래문제였으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자녀가 어떤 종교라도 가진 자녀보다 더 문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父不在 원인에 따른 자녀문제는 학교생활문제, 학업문제, 장래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父이별이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며, 특히 이혼 가족아가 사사망 가족아에 비해서 학교생활에서 이탈적이며 학업성취가 미숙하다는 것과 일치한다(Hetherington, et al, 1975; 황옥자1980; Kalter, 1989). 母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적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편모자녀가 경험하는 문제는 단순히 父不在로 인한 역할모델의 상실때문이 아니라, 父不在 후 母의 적응과 자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문제해결방식의 차이

자녀의 문제해결방식의 일반적인 경향과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F-test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방식 중, 종교적 도움의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문제회피/방관, 친구·교사의 도움, 스스로 해결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현숙(1993)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변인별로 자녀의 문제해결방식을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구·교사의 도움, 종교적 도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문제에 직접 직면하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Davis(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종교적 변인에 따라서는 종교가 없

는 자녀에 비해서 어떠한 종교라도 지닌 자녀가 친구·교사의 도움, 종교적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母의 양육태도에 의해서는 친구·교사의 도움, 종교적 도움, 스스로 해결, 문제회피/방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문제를 친구·교사의 도움, 종교적 도움, 스스로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문제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했고, 적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문제회피/방관적 방식을 사용했다.

이상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경우, 자녀는 긍정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취하는 반면,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경우는 문제회피/방관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처방법은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사용하면 정서적 안정과 문제해결능력을 얻을 수 있으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경우 심리적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발산할 수 있고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자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군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낸 표는 <표 4>와 같다. 각 독립변인군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군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모델 i은 가족구조적 특성이 자녀의 적응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모델1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으며, 母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나타낼 때 자녀들이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억압적일수록 자녀들이 행동장애를 유발한다고 한 Avshalom & Elder(1988)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모델 ii는 가족구조적 특성에 자녀가 일상생활

〈표 3〉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의 문제해결방식의 차이

변인구분 집단 (빈도)		친구·교사 도움	종교적 도움	스스로 해결	문제회피 /방관
전 체 (M)		3.47	3.96	3.06	3.80
자녀 연령	13-16(79)	2.58	2.03	2.97	2.21
	17-19(107)	2.18	2.04	2.96	2.24
	t 값	0.54	0.05	0.13	0.28
자녀 성별	남(75)	2.37	1.97	3.00	2.25
	여(111)	2.67	2.08	2.94	2.19
	t 값	2.54*	0.76***	0.51	0.46
자녀 종교	무교(71)	2.33 a	1.35 a	2.97	2.19
	기독교(54)	2.66 b	3.02 b	2.99	2.23
	천주교(14)	3.02 b	2.26 c	3.14	2.21
	불교(43)	2.61	1.85 c	2.91	2.31
	기타(3)	3.08	2.33 b	2.56	1.56
	F 값	3.22*	38.90***	0.48	0.81
아버지 원인	사망(110)	2.54	2.07	3.01	2.11
	이혼·별거(76)	2.55	1.98	2.89	2.36
	t 값	0.15	0.61	1.02	2.19*
어머니 학력	국졸이하(59)	2.47	1.99	2.89 a	2.02
	중졸(69)	2.56	2.03	2.90 a	2.36
	고졸(49)	2.59	2.07	3.05	2.29
	전문대졸이상(9)	2.78	2.22	3.52 b	2.11
	F 값	0.49	0.16	2.29	2.61*
어머니 직업	일일노동자(61)	2.62	1.99	3.05	2.21
	농·축산업(57)	2.59	2.23	2.99	2.26
	외판원·상인(46)	2.36	1.83	2.78	2.14
	6급이하 공무원(22)	2.61	2.11	3.08	2.29
	F 값	1.12	1.46	1.46	0.32
어머니 월수입	40만원이하(32)	2.64	2.17	3.11	2.16
	1-61만원(46)	2.54	2.01	2.94	2.28
	61-80만원(37)	2.68	2.11	2.92	2.06
	81-100만원(29)	2.27	1.92	2.98	2.36
	101만원이상(26)	2.48	1.92	3.04	2.26
	F 값	1.21	0.36	0.33	0.88
어머니 양육 태도	적대(86)	2.41	1.87	2.72	2.36
	애정(100)	2.67	2.18	3.17	2.09
	t 값	2.17*	2.17*	4.30***	2.56*
	자율(81)	2.51	1.99	3.03	2.02
	통제(105)	2.59	2.09	2.88	2.48
t 값	0.69	0.67	1.31	4.28***	

* p<.05 ** p<.01 *** p<.001

〈표 4〉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n=186)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령(고등학생=1)	--											
2. SES	.0976	--										
3. 자녀종교(무=1)	.0437	.0232	--									
4. 부부재원인(사별=1)	.1364	-.0026	.1025	--								
5. 자녀문제	.1302	.1384	.0220	.1637	--							
6. 친구/교사 도움	.0430	.0885	.2369	-.0416	.0865	--						
7. 종교의 도움	.0041	-.0342	.3857	.0341	.0061	.1779	--					
8. 스스로 해결	.0462	.0118	.0577	.1103	.2625	.1845	.1615	--				
9. 문제회피/방관	-.0262	.0967	.0907	-.0945	-.3716	.1587	.0734	.0020	--			
10. 애정-적대	.0888	.0573	.1748	.1047	.4165	.1769	.1622	.3050	-.1006	--		
11. 자율-통제	.1213	.0354	.0292	.2284	.4971	-.1103	-.0206	.0588	-.3585	.4049	--	
12. 적응	.1365	-.0030	-.0933	.1835	.6774	-.1002	-.0351	.2120	-.4085	.2352	.4774	--
평 균 (M)	1.441	2.705	1.429	1.417	2.359	3.483	3.968	3.053	3.803	2.732	2.068	2.427
표준편차 (SD)	.498	.494	.706	.494	.558	.819	1.014	.776	.684	.651	.734	.470

〈표 5〉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군들의 효과

(종속변인: 정서적 부적응 행동)

독립변인	모 델 I 가족구조적 특성 B (β)	모 델 II 자녀문제 B (β)	모 델 III 문제해결방식 B (β)
연 령(고등학생=1)	.0834(.0883)	.0504(.0533)	.0524(.0554)
SES	.0106(.0591)	-.0239(-.1336)*	-.0213(-.1188)*
자녀종교(무=1)	-.0584(-.0926)	-.0351(-.0557)	-.0425(-.0674)
父不在원인	.0669(.0703)	.0384(.0403)	.0285(.0299)
애정-적대적 양육태도	-.1213(-.0319)	-.6047(-.1596)**	-.7412(-.1956)**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0361(-.4519)***	-.0183(-.2282)***	-.0581(-.1974)**
가정생활 문제		-.0322(-.0629)	-.0390(-.0764)
정서적 문제		.1352(.2413)***	.1276(.2277)***
학교생활 문제		.0539(.1082)	.0535(.1072)
교우관계 문제		.1104(.1985)***	.1115(.2004)**
학업문제		.0810(.1463)*	.0659(.1191)
경제적 문제		.1058(.1857)**	.0959(.1684)*
장래문제		.0786(.1705)*	.0779(.1690)*
친구·교사의 도움			.0462(.0814)
종교적 도움			.9808(.0212)
스스로 해결			-.0522(-.0839)
문제회피/방관			.0848(.1283)*
R2	.2507***	.5484***	.5737***

* p< .05 ** p< .01 *** p< .001

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첨가하여 구성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적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가 정서적문제, 교우관계문제,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29%의 변량이 추가되어 총 설명력은 54.8%였다. 이는 편모 자녀들이 정서적 문제, 교우관계문제, 학교생활 및 기타 생활문제가 상호작용하여 우울이나 불안 및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모델 iii은 문제해결방식을 추가하여 제변인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문제 회피/방관적인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 부적응 행동이 많았다. 문제회피/방관적인 방식은 본질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에 오히려 장애를 가져와서 자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델 iii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57.4%였으나 설명변량의 증가는 2.5%에 불과했다. 따라서 세 독립변인군 중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군이 아동의 적응상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변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정서적 문제($\beta = .2277$), 교우관계 문제($\beta = .2004$)로 정서적 문제와 교우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이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 동기로 정서적 문제와 학업문제를 높게 지적한 이길홍(부산일보, 1991. 10.18)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교우관계에서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적응 행동이 높아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교우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편모가정의 자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편모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상가정과와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父不在라는 위기적 사건으로 인하여 일

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편모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제 및 문제해결방식과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평균 5점 만점에 2.37로 나타나 중간보다 약간 낮았다. 요인별로는 학업문제와 장래문제가 높았으며, 교우관계로 인한 문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조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일수록, 남아일수록 가정생활문제, 정서적문제, 교우관계문제, 장래문제를 더 많이 경험했다. 또한母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종교를 가질수록 문제를 적게 경험했다. 母의 양육태도에 따라서는 자녀문제 전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로서 어머니의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父不在 후 자녀문제를 높이는데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종교적 도움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문제회피/방관, 친구·교사의 도움, 스스로 해결 순이었다. 가족구조학적 변인별로는 여아일수록, 종교를 지닌 아동일수록, 母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친구·교사의 도움, 종교적 도움과 같은 긍정적인 문제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며, 父不在 원인이 이혼·사별인 경우와 母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문제회피/방관적인 방식이 많았다.

셋째,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의 구조적 변인,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 자녀의 문제해결방식을 각 독립변인군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회귀분석 해 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일수록, 자녀가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방관/회피적 문제해결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높았으며,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군이 자녀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이것은 편모가정 내 자녀의 부적응 행동이 자녀연령이나 성별, 父不在 원인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父상실 이후 母의 양육태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 자녀

의 문제해결방식이 서로 복합적으로 관련하고 있어서 체계론적 관점을 지지하였다.

이들 결과로 볼 때, 편모가정 내 자녀의 적응은 父不在 후 경험하는 “문제”와 문제해결방식과 같은 “대처방안”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하며 자녀문제와 대처방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 구조학적 변수로 父不在 후 母의 양육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문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래로 편모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 가족을 위한 정책적·비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父不在라는 사실 그 자체나 不在 원인이 자녀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父不在 후 경험하는 문제가 부적응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방과 후에 이들을 지도, 교육함으로써 母의 이중적 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부모 대신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함으로서 학습적응과 생활개선, 나아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시켜서 한번의 질문지 검사만 했으므로 응답 정확성의 한계와 확대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타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면접·사례연구를 병행한다면,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적응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상가정의 자녀들과 비교·분석하지 못했으므로,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가족구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정상자녀와 편모자녀를 비교·분석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혼·별거율의 증가와 더불어 편모자녀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편모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편모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해구, 결손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 비교,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 국제신문, 1990. 2. 7.
- 3) 김경중, 부친 부재가 자녀의 인간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2.
- 4) 김미영, 결손가정 학생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합리적 신념의 차이,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1989.
- 5) 김병임, 양육태도, 자아개념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의 분석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6) 김순애, 결손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7) 김영희, 결손가정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7.
- 8) 김정옥, 이혼의 사회적 배경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4호, 1993, 83-94.
- 9) 김정자,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권3호, 1989, 1-35.
- 10) 김태현, 다양한 가족생활 유형, 가족학, 1993, 43-45.
- 11) 박선영,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8.
- 12) 박원희, 결손가정 학생의 성격 특성,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 13) 부산일보, 1991.10.18.
- 14) 이정숙, 부친 부재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17권 4호, 1979, 75-93.
- 15) 이종승,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시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노트(11), 1983.
- 16) 장기령,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1983.

- 17) 정현숙,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1993, 105-154.
- 18) 조선일보, 1991.12.3.
- 19) 조용문,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편모, 정상가정 자녀 비교-,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5.
- 20) 최선애, 부친 부재가 자녀의 정서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4.
- 21) 황옥자,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 22) Amato, R., & Keith, B.,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110, 1991, 26-46.
- 23) Amato, R.,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55, 1993, 22-35.
- 24) Avshalom, C., & Elder, G.H., Emergent family patterns : The intergenerational construction of problem behavior and relationships, *N.Y.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25) Baydar, N., Effects of parental separation and reentry into union on the emotional well-being of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50, 1988, 967-981.
- 26) Berg, B., & Kelly, R., The measure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broken, rejected, and accept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V2, 1979, 363-369.
- 27) Booth, A., & Amato, R.,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32, 1991, 396-407.
- 28) Bower, E., 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 handicapped children in school, 2nd. ed.,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1978.
- 29) Cocharn, M., Larner, M., Riley, D., Gunarson, L., & Henderson, R., Extending families : The social network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30) Davis, 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The Gerontologist*, 22(6), 1984.
- 31) Deborah, D., :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53, 1991, 573-584.
- 32) Dombusch, S., Carlsmith, M., Bushwall, S., Ritter, P., Leiderman, H., Hastorf, A., & Gross, R., Single Parent, extended household and the control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56, 1985, 326-341.
- 33) Furstenberg, F., & Nord, W., Parenting apart : patterns of childrearing after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47, 1987, 893-904.
- 34) Helly, M., Mally, E., & Stewart, J., Children and their fathers after parental separ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60, 1990, 531-543.
- 35) Hetherington, M., Cox, M., & Cox, R., *Beyond Father Absence*, Conceptualization of effects of divorce, 1975.
- 36) Hetherington, M., Divorce : A child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V34, 1979, 851-858.
- 37) Hetherington, M., Cox, M., & Cox, R.,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young children, In M.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1982, 233-288.
- 38) Hetherington, M., & Anderson, E., Marital transition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V44, 1989, 303-312.
- 39) Jeanne, T., Janet, J., & Joudith, W., Family process and children's function during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9, 193-197.
- 40) Johnston, R., Kline, M., & Tschana, M.,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 Effects on children of joint custody and frequent acc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59, 1989, 576-592.
- 41) Judith, S., Norac, S., & Hong-wen, C., Families after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1, 1014-1015.

- 42) Kalter, N., Kloner, A., Schreier, S., & Okla, K., Predicators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59, 1989, 605-618.
- 43) Kitson, C., Babrl, K., Rorch, M., & Placidl, S., Adjustment to widowhood and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10, 1989, 5-32.
- 44) Kitson, C., & Morgan, A.,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52, 1990, 913-924.
- 45) Levinger, G., & Moles, C., Divorce and Separation. N.Y :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9.
- 46) MuCubbin, H., Larsen, A., & Olson, D., F-COPE :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St.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1985.
- 47) Peterson, J., & Zill, N.,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behavior problem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48, 1986, 295-307.
- 48) Santrock, W., Relation of type and onset of father absence to cognitive development, *ChildDevelopment*, V43, 1972, 455-469.
- 49) Wallerstein, J., & Blakeslee, S., Second chances : Men, women &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 Ticknor & Fields, 1989.